칼 럼

한 정 길 함평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불나면 신고먼저? 아니, 대피먼저!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듯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해졌다.

가을철이 다가오면 습기가 적고 건조해 순식간에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학교 또는 관공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이 활성화되어 한번쯤은 심폐소생술 교육 및 소화기 사용법을 들어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층건축물 등 현대건축물에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는 119신고도 소화기 사용도 아닌 대피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외국(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는 화재발생 시 소화방법 교육에 앞서 비상대피를 우선하여 교육한다.

소방청이 최근 3년간 화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 발생건수는 2016년 43,413건에서 2018년 42,33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인명피해는 2016년 2,024명에서 2018년 2,594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소방시설의 기능이 좋아지고 있는 요즘, 사상자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현대건축물의 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불에 탈 경우 독성가스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화재 시 당황한 상태에서 대피로를 찾기 어려울 수 있는 것도 문제다.

화염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 사망자가 많다.

화재 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소화기 사용법과 119신고요령도 알아야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집, 학교, 회사 등 생활단위 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평소 화재대피훈련을 습관화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9년 1월 천안 차암초등학교 증축공사 중 화재가 발생, 약 9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으나 평소 화재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기에 학생 모두 신속 대피하여 사상자가 없었다.

화재발생 시 탈 수 있는 가연성 물질과 산소만 있으면 화재가 확대되기 좋은 조건이므로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 문을 닫으며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거나 어려울 때는 옥상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화재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한가지만 기억하자.

"문 닫고 대피해요"

社 說

'정책국' 조직 활성화 계기돼야

전남도교육청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정책국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니 기대가 크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조직개편추진단을 구성, 120일간의 운영을 통한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중복·유사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내년 3월1일자 시행 목표인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9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이달 하순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말 전남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2국 3담당관 13과 60팀에서 3국 3담당관 14개과 61팀으로 규모가 늘어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본청의 교육정책과 안전 등을 총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정책국의 신설이다.

정책국장은 일반직 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임명되며, 정책국에는 △정책기획과 △혁신교육과 △안전총괄과 △노사정책과등 4개팀 체제로 운영된다.

홍보담당관이 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교육시설감리단이 폐지되고 감리담당관이 신설된다.

직속기관은 현행 14개 기관 10분원에서 12개 기관 9분원으로 축소된다. 자연탐구수련원이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으로 업무가 통합돼 팀이 신설되고 교육시설감리단은 이 폐지돼 부교육감 직속 감리담당관으로 개편된다. 전남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정보팀 업무도 조정되고 기관장은 현행 3급 상당에서 4급 상당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6개의 학생수련장을 전남학생교육원 소속 분원으로 재편하고 교육기획부와 교육운영부를 기획운영부로 통합한다.

전남과학교육원은 명칭이 창의융합교육원으로 변경되며 산하 전남환경교육센터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으로 업무가 통합된다.

전남도교육청의 이번 조직개편안이 조직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철 안전산행을 위하여

올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이 끝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 한 공기가 느껴져 가을이 우리곁으로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낄수 있다.

가을은 산에 오르기 좋은 계절로 단풍과 낙엽으로 가득한 가을산은 모두에게 매력적이다.

하지만 등산객이 많음과 동시에 각종 가을철 산악안전사고 발생빈도 또한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가을산행을 위해 각종 산악사고 예방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 두시간 전에 마치도록 한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해가 점점 일찍 지고,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산은 도시에 비해 약 5도정도 기온이 낮기 때문에 저체온증 등 등산객들이 위험에 처해 질수 있다.

이를 대비해 방풍복과 여벌의 보온 의류, 열량이 높은 간식 준비는 필수라고 할수 있다.

둘째,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능력이 좋은 것으로 신는다. 가을철 산악안전사고의 대부분이 무릎과 발목 부상이다.

수분을 머금은 낙엽이 쌓인 등산로는 매우 미끄러우므로 보폭을 넓게 하지말고 항상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하며 특히, 오르막길에서는 앞 발끝부터 내디디고 등산화 바닥전체를 지면에 밀착시켜 충격을 줄이도록 한다.

이처럼 불규칙하고 험한 산길을 걷다보면 다리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매우크므로, 충분한 준비운동과 기능성등산화 착용 및 올바른 보행습관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셋째, 야생 독버섯 섭취 금지, 가을철 산행중 야생독버섯으로 인한 식중독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서식중인 버섯은 1,600여종으로 이중 섭취가능한 버섯은 20여종에 불과하다.

흔히 색깔이 화려하지 않고, 세로로 잘 찢어지며 벌레가 먹은 것, 버섯요리에 은수저를 넣어 변색되지 않으면 식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맹독성인 독우산광대버섯은 흰색에 세로로 잘 찢어지고, 벌레도 잘먹는다.

식용버섯요리도 은수저를 넣으면 변색될 수 있다.

독버섯을 섭취하면 30분에서 12시간내 두통, 구토, 발진 등 중독증상이 나타나므로, 이때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며, 물을 마시고 토하게 한 후 남은 버섯은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병원에 가지고 가야한다.

이처럼 가을철 각종 산악사고 예방을 통해 모두가 즐거운 가을산행이 되기를 바란다.

최성영 /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